

기 고

박 창 일 강진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장



1분 1초 출동시간의 소중함

소방서에서는 누군가의 긴급한
을 알리는 전화가 오면 상황실에
서 전화를 받아 방송을 통해 전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신속한 상황판단을 위한 조치
로 대부분 급박하고 절실한 상황
이며, 빨리 와주길 바라는 간절함
이 붙어있는 신고내용들이다.
화재나 구조·구급 등 긴급출
동을 요하는 소방서의 업무는 시
간과의 싸움이다
짧은 시간에도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며 그로인해 뜨거
운 불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과, 차에 깔려있거나 건물에 매달
려 구조를 바라는 사람은 더욱더
힘에 부쳐 생명의 사신을 날라 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대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그만큼 출동에 있어 얼마나 빠
르게 도착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
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소방대원들은 출동지량이 내려
지면 신속하게 장비가 실려 있는
차에 올라 도로로 나서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차량의 흥수 속에서 신속을 요
하는 출동 소방차량은 고립되기

일수이며, 일부 시민의식이 부족
한 탓에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만
나게 된다.
만일 소방차가 사이렌이나 경
광등으로 긴급함을 알리며 출동하
고 있다면 "도민 여러분들에게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단 정차하
여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
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한다.
이는 도민 개개인이 위험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첫 단추다.
도로에서 도민들의 도움을 얻
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면 불법
주정차량이 소방차를 막아서는 또
다른 난관에 도착을 한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행히 빠
리 주인을 찾아 이동조치 할 수
있겠으나, 사방이 적막하고 어두
운 야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다. 평소 소방차량
진용도로에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긴급사황을 대비하
여 불법적인 차량의 주정차를 삼
가 주시기 바란다.

소방서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과 인성을 보존하는 일이며, 신속
성이 요구된다.

이는 도민의 관심과 도움 없이
는 불가능한 일이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젠
가는 나에게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나의 가족에게도 불행의
순간이 발생하여 구조의 손길이
요청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소방차량의 출동
시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
다.

단 1초의 조치에도 한 생명의
생사를 관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협조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
다.

社 說

식중독 주의해야 할 때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식중독 경
고등이 함께 커졌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졌다면서 음식물 조리·보관·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고온
다습한 여름에 주로 발생한다. 최
근 기후 변화에 따른 이른 더위
등으로 여름철(6~8월) 환자 수가
연 1000~2000명대를 꾸준히 기록
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엔 30건,
1832명의 식중독 사례가 발생했
다. 올해도 5월부터 20도 중·후
반대의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식중독 위험이 빨리 찾아왔다.

식중독에 걸리면 붉은 설사하
복통,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특히 오염된 채소류 섭취에 따른
식중독 환자(34%)가 가장 많다.
육류(16%),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3%)이 뒤를 이었다. 이는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상추·요이·부
추 등을 깨끗한 물로 씻지 않았거
나 씻었어도 상온에 잠시간 둔 뒤

에 먹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4년 5월 인천 지역 10개 초·
중·고교 1163명에게 발생한 집단
식중독도 오염된 열무를 충분히
세척하지 않고 김치를 담그면서
발생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을 예방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 씻
기가 제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첫 단계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는 반드시 비누 등을 사용해서 30
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육류와 수산물 등을 세척할 때
는 주변에 날로 먹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칼·도마를 쓸 때도 조리되
지 않은 식품과 이미 조리된 식
품 용도를 구분해야 한다. 채소
는 염소 소독액이나 식초로 5분
이상 담갔다가 물로 3번 이상 세
척해야 한다. 씻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두는 건
피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에 식중
독을 기해 여름철 식중독으로 고생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자전거 횡단보도 통행시 내려서 건너야

도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제
자전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
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로는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 위하
서 그리고 최근 고유가로 인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도 부쩍 늘었다.

하지만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
전거지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
는 횡단보도를 다닐 때는 특히 주
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하지만 사고
시에는 그 책임은 의외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보행자
로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된 생각
이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경우와
자전거를 끌고서 건너는 경우는 사
고 시 엄연히 다르다.

만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를 건널 때 보행자 또는 다른 차
량과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자.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 시에
는 차대 사람의 사고로 인정이 돼

자전거를 탄 사람은 그 책임이 더
커지게 된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대 차 사고로 인정이
돼 차량끼리의 사고로 간주된다.

즉, 자전거를 탄 경우와 타지
않은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제2조 17
항)상 차에 해당한다.

여기서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사람 또는 가
축의 힘이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가리킨다. 당연히
자전거를 탄 사람은 차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 시에는 자
전거 운전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
하다. 자전거에서 내려 건너기를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한
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시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
서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건너
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비상구는 생명의 문

최근 실내 활동이 늘고 있고
영화관·백화점·PC방 등 다중이
용업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
면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본
기억이 있는가.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
람들은 패닉상태에 쉽게 빠진다.
또 본능적으로 화재가 난 곳의
반대편으로 대피하려고 한다. 사
전에 비상구 위치를 파악하지 않
았다면 낯설고 어두운 화재현장
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은 일
이다.

소방에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
을 돕는 소방시설을 다중이용업
소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
다. 다중이용업소 이용객과 관계
인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부를 한
다.

첫째, 이용객은 건물 구조와 비
상구를 확인하고 피난안내도를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 피난안내
도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최단 경로로 피난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돼 있고 보기 쉬운 곳
에 부착된다.

유도등은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구나 통로를 쉽
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상
시 비상구와 유도등을 확인하는 작
은 습관이 큰 참사를 막는다.

둘째, 관계인은 비상구 등 소방
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특히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로 사람
을 다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
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고, 습지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제 여부를 떠나 관계인은 다
중이용업소 운영의 책임과 의무
가 있는 만큼 소방시설 유지관리
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상구는 밀폐된 어두운 공간
에서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를 때
생명을 보호하도록 돕는 첫 번째
길이다. 시민들이 비상구에 작은
관심을 기울이면 이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이희왕 / 화순소방서 소방교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存 있을
以 써
甘 달
棠 아가위

存 以 甘 棠

▷ 뜻: 주(周)나라 소공(召公)이 남국(南國)의 아가위나무 아래에서 백성(百姓)을 교화(教化)했음.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8
광곡 (062) 222-5544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김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국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